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홍명보호 오늘밤 말리전 필승 전략은?

말리와의 평가전을 앞둔 14일 파주 NFC에서 축구 대표팀 코치진과 선수들이 모여서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톱 이근호 낙점… 공격 조합 완성

"수비조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만 공격조합은 여전히 만드는 과정이다."

홍명보(44)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7월 동아시안컵을 통해 사령탑 데뷔전을 치른 이후 소집 때마다 선수들에게 수비조직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수비수 출신 지도자답게 튼튼한 수비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공격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홍 감독은 그동안 수비조합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포백(4-back)은 조직력이 생명인 만큼 중앙 수비에 김영권(광저우)-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조합을 기본으로 좌우 풀백을 조금씩 교체하는 수준이었다.

수비형 미드필더 조합은 기성용(선덜랜드)-한국영(쇼난) 주전 체제에 이명주(포항)와 박종우(부산)가 백업 요원으로 받치는 형국이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브라질 평가전에 나선 더블 볼란테-포백 조합이 사실상 내년 월드컵 본선 무대를 겨냥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홍 감독 역시 "이번 말리전에선 수비조합을 크게 바꾸지 않겠다"고 말해 전문가들의 분석을 뒷받침했고, 14일 훈련에서도 홍 감독은 김진수-김영권-홍정호-이용 조합을 주전조로 가동했다.

이에 따라 15일 밤 8시 말리전을 앞둔 홍 감독의 숙제는 공격조합을 완성하는 일이다. 홍 감독도 말리전의 주안점을 공격조합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믿을 만한 원톱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점은 홍명보호의 아킬레스건이다. 이 때문에 홍 감독은 그동안 '제로톱 전술'에 가깝게 미드필더 자원들을 원톱 자리에 올려놓고 경기를 치렀다.

홍 감독은 브라질전을 치르면서 원톱 스트라이커 요원인 지동원(선덜랜드)을 정점으로 좌우 날개에 김보경(카디프시티)과 이청용, 섀도 스트라이커에 구자철을 배치한 가운데 후반에 손흥민(레버쿠젠), 이근호(상주), 윤일록, 고요한(이상 서울)을 교체로 가동했다.

홍 감독은 14일 훈련에서 8명의 공격자원을 2개조로 나눴다.

이근호를 원톱으로 좌우에 김보경과 이청용을 배치하고 섀도 스트라이커에 구자철을 세운 조합과 지동원을 정점으로 손흥민-고요한의 좌우 날개에 윤일록이 섀도 스트라이커로 나선 조합을 각각 가동했다. 전력상 이근호-김보경-이청용-구자철 조합이 말리전에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류현진 "무조건 이기는 피칭하겠다"

다저스 운명 안고 오늘 3차전 출격

"초반부터 전력투구하겠다. 초반 실점은 최대한 안 주겠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내리 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위기에서 구해내야 하는 류현진(26)이 필승의 각오를 밝혔다.

15일 (한국시간) 오전 9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리그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 선발 투수로 나서는 류현진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초반 부진을 털어내고 이기는 피칭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인트루이스의 에이스 애덤 웨인라이트와 선발 맞대결을 펼치는 류현진은 "나는 상대팀 선발 투수와 대결하는 게 아니라 상대팀 타자들과 대결하는 것"이라며 "상대팀 선발 투수가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하는 것도,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것도 좋지 않다"면서 "내일은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류현진과 일문일답.

-경기를 앞두고 기분이 어떤가.

▲ 원정에서 두 번 지고 왔기에 부담은 있다. 그래도 홈에 왔고 많은 팬의 성원이 있을 것이고, 선수들도 다들 열심히 할 것이다. 일곱 번 경기 중에 네 번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니 나는 무조건 이기는 피칭을 하겠다.

-정규 시즌 때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잘 던지지 않았나. 부담도 있지만 자신도 있을 것 아닌가.

▲자신감이야 잘 던졌던 팀이나 그렇지 않은 팀이나 마찬가지다. 정규 시즌과 포스트시즌은 큰 차이가 있다. 자신있다고 자신감만 가지고 던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던져야 할 것 같다.

-(부진했던) 디비전시리즈 3차전 선발 등판 때 경험이 등판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나.

▲디비전시리즈 등판 때는 물론이고 정규 시즌 때도 초반에 점수 많이 준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일은 초반 실점은 않도록 하겠다. 설사 점수를 준다 해도 최소화하겠다. 3회 이전에는 전혀 점수를 안 준다는 각오로 던지겠다.

-포스트시즌에서 무척 잘 던진 웨인라이트가 내일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인데.

▲나는 상대팀 투수와 대결하는 게 아니라 상대팀 타자와 대결한다. 아무리 상대팀 투수가 뛰어난 선수라도 내가 상대팀 타선을 잘 막으면 된다. 상대팀 선발 투수가 누구든 신경 쓰지 않겠다.

-한국시리즈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서 겪어본 포스트시즌과 다른 점이 있나.

▲ 다른 건 없다. 비슷하다. 시즌 때와 달리 한 경기 한 경기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점에서 같다.

-디비전시리즈에서 너무 일찍 강판당했는데 좀 오래 던져야 하는 것 아닌가.

▲포스트시즌에서는 선발 투수가 오래 던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초반부터 전력투구하면서 5회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타선이 너무 침묵하고 있는데.

▲걱정 없다. 다들 치려고 하니까. 두 경기 부진했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타선 아닌가.

-팀이 위기에 몰리면 구원 투수라도 나설 의향이 있나.

▲ 아직 코칭스태프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기꺼이 나서겠다. 팀이 이기는데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연합뉴스

LPGA 하나·외환 챔피언십 "내가 우승"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부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하나·외환 챔피언십이 18일부터 사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개최된다. 14일 열린 대회 기자회견에서 최나연, 폴라 크리머(미국), 박인비, 수잔 페테르텐(노르웨이), 유소연, 크리스티 커(미국) 등 참가 /연합뉴스

윤석민 美출국

KIA 새내기 박상옥에게 성공비법 원포인트 레슨 "자신감 갖고 야구만 생각하라"

투수 윤석민이 후배들에게 말하는 성공비법은 '야구 생각'이다.

KIA의 2014 신인 투수 박상옥(연세대)은 얼마 전 소원성취를 했다. 우승의 추억이 담긴 무등경기장을 찾아 자신의 우상 윤석민과의 만남을 가진 것이다.

박상옥은 서울 청원고 2학년 시절인 2008년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MVP를 수상했던 선수. 졸업 후 처음으로 무등을 찾은 박상옥은 꼭 만나보고 싶던 윤석민과의 자리도 가졌다.

박상옥은 "고등학교 시절 직구만 던질 줄 알던 선수였다.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해서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윤석민 선배의 피칭을 보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 선배의 동영상은 다 찾아본 것 같다. 어떻게 변화구를 던지는지 그립과 릴리스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연구했다"고 말했다.

설레는 만남의 순간, 윤석민은 후배에게 '야구 생각'이라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비법을 말해줬다.

윤석민은 "야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다. 상황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집중해야 한다"며 "경기 전날에는 (류)현진이도 긴장하고 등판에 집중을 하는데 요즘 후배들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경기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신감도 윤석민이 강조한 무기다.

윤석민은 "자신의 야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프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왔던 그대로 하면서 야구를 배워가는 게 필요하다. 욕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며 "유별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신인 때 생각대로 안되면 성질도 내가면서 물고늘어졌다. (심)동섭이나 (양)현종이 같은 경우에는 뜻대로 야구가 안되면 분해하기도 하고 욕심내는 기특한 후배다. 경기장에서만큼은 자신이 중심이 돼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애정 어린 충고를 했다.

윤석민은 박상옥의 부탁에 변화구 그립도 잡아보이며 원포인트 레슨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박상옥은 "경기장에서 선배님의 피칭은 처음봤는데 슬라이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커브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웃으며 "고속 슬라이더에 대해 설명도 인상적이었다. 검지로 슬라이더를 채는데 선배님은 중지를 이용해서 직구처럼 던진다고 했다. 이를 빨리 응용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후배에게 성공비법을 전해준 윤석민은 또 다른 성공을 위해 14일 오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빅리그 도전을 위한 첫걸음. 윤석민은 2~3주 가량 미국에서 운동을 하며 류현진 응원·영어배우기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후 일시 귀국해 FA(자유계약 선수) 신청 과정을 밟으며 향후 거취에 대한 본격적인 행보를 하게 된다.

윤석민은 "아직 미국 진출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행을 가는 기분이다. 마음 편하게 지내면서 내년 시즌에 대한 방향을 잡고 오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덕수고, 대한야구협회장기 고교야구 초대 챔프

청주고 8대1 제압… 시즌 3관왕

광주에서 처음 열린 대한야구협회장기 대회에서 덕수고가 초대 우승팀이 됐다.

덕수고는 14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 1회 대한야구협회장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청주고를 8-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초대 우승이자 시즌 세 번째 우승이다.

덕수고는 2회초 수비 실책이 나오면서 선취점을 내줬지만 착실하게 추격을 하며 역전승을 이뤘다.

시즌 세 번째 우승을 이끈 덕수고 정윤진 감독은 "3학년 주축선수들이 부상으로 많이 빠졌는데 2학년들이 생각보다 잘해줬다. 남아있는 3학년과 2학년이 잘 어우러져 좋은 성적을 냈다"며 "빛고을 광주에서 초대 우승을 하게 돼서 영광이다. 남은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지금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 청룡기 3연패데 도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회 첫 MVP의 영광은 투수 한주성에게 돌아갔다. 두산 우선지명인 한주성은 이번 대회에서 팀의 4승을 모두 책임졌다.

한주성은 "광주에서는 처음 경기를 했는데 그라운드 상태도 좋았고, 우승까지 하게 돼서 기분이 좋다"며 " 전국체전 잘 준비하고 프로에서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